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심 종 은 · 이 영 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그리고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척도인 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 2)와 TOSCA(Test of Self-Conscious Affec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325명의 여대생들이 본 연구에 참가하여, PFQ-2, TOSCA,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및 사건귀인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FQ-2와 TOSCA 모두에서 수치심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 반면, 죄책감 경향성이나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건귀인은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임상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들이 언급되었다.

최근까지 수치심과 죄책감은 서로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정서로 다루어져 왔다. 일찍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죄책감은 초자아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신장애훈 일으키는 주된 정서로 많은 주의를 받았다(Freud, 1930/1961). 그러나 Piers와 Singer(1953/1971)가 수치심을 자아 이상(ego ideal)과 연결하여 죄책감과 구

별하면서, 수치심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서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Tomkins(1987)가 영아들에게서 수치심을 관찰하고, 수치심의 원초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죄책감과 구별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수치심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이는 기본적인 9가지 정동 유형들 중의 하나인 반면에, 죄책

* 본 논문은 두 번째 저자의 지도하에 첫 번째 저자가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영 호 /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FAX 032-340-3275 / E-mail yhlee@www.cuk.ac.kr

감은 수치심의 몇가지 변형 중의 하나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Tomkins의 주장이 타당할지라도, 대부분의 임상적 이론가들은 실제 임상장면에서 나타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현상학적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Lewis(1971)에 의하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지만, 부정적 정서의 초점이 다르며, 서로 다른 현상학적 경험을 가져온다. 전형적으로 수치심은 어색함, 노출, 비웃음, 경멸의 경험으로 기술된다. 못마땅한 행동은 못마땅한 자기의 반영으로 경험되고, 자기 전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치스러워 하는 사람이 언짢은 것은, 타인 또는 '내면화된 타인'이 자기 또는 자기의 어떤 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죄책감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실패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행동은 다소 자기와 떨어져 평가되고,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느낌을 낳는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언짢은 것은, 자신의 행동을 내면으로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비록 Tomkins의 정동이론이 넓게는 생리적 수준에 머무르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하나의 기본적 정서의 변형으로 보지만, 정신역동 이론과 인지적 이론들은 평가양식이나 동기화의 경향성에 있어서 두 정서가 상당히 구별된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심 문제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두 정서가 성격유형, 증상, 현상학적 경험 및 치료를 위한 함의에 있어서 구별해야 할 정도로 다른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진 경험적 연구들은 두 정서가 현상학적으로 다른 경험을 가져오며, 따라서 임상적으로 상당히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죄책감 발달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죄책감이 공감능력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Zahn-Waxler, Kochanska, Krupnick, & McKnew, 1990), 부모의 거부보다는 애정과 정적 상관이 있다(Zahn-Waxler & Kochanska, 1990). 이 결과들은 죄책감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죄책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치도록 동기화하거나, 보상하거나 또는 사과하

도록 동기화하는데(Hoffman, 1982; Karniol, 1982; Zahn-Waxler & Kochanska, 1990),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면 죄책감은 감소되는 것 같다. 한편 Freud학파에서 죄책감이 처벌 소망을 자극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증명되지는 못하였다(Baumeister & Scher, 1988; Freedman, 197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죄책감을 병인론적 정서로 보던 전통적인 관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죄책감에 대한 연구들은 친사회적 효과를 지지하는 것들이 대다수이지만, 죄책감과 회피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상반되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즉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자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Freedman, Wallington, & Bless, 1967).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희생자가 죄책감의 단서가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불쾌감을 예방하기 위해 피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Tangney(1991)는 이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즉 사회적 철회 반응이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연구들이 두 정서를 동시에 면밀히 구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뒤섞어서 종종 보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생자와 마주 대하길 꺼리는 것을 단순히 죄책감의 결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의 깊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뒤에 죄책감만이 그런 효과 - 희생자와 마주 대하기 꺼림 - 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두 정서를 동시에 평가하고 비교하여 그 현상적 차이를 다루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아동과 성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Harder & Zelma, 1990; Tangney, 1992)은 Lewis(1971)가 언급하였던 두 정서간의 중요한 현상학적 차이를 입증했다. 수치심은 자기 전체에 대해 나쁘게 느끼고, 숨거나 타인에게 비난을 퍼붓도록 하는 반면, 죄책감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후회하고 이것에 대해 고백하거나 사과하기, 또는 보상하기 등과 같은 행위가 동기화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도구들을 이용해서 두 정서와 정신병리간의 관련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즉 사람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하는 경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개념에 기초해서 이 두 정서의 경향성을 측정해서 이런 경향성이 여러 심리적 장애들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 했다. 그 중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과 강한 정적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입증되었지만, 죄책감 경향성에 대해서는 연구들 간에 차이가 있다. Harder, Cutler 및 Rockart(1992)는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 2: Harder & Zelma, 1990)를 사용하여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과 여러 증상들간의 관련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우울증상이 수치심과의 상관만큼 강하진 않으나 죄책감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Tangney, Wagner 및 Gramzow의 연구(1992)에 의하면, TOSCA를 사용했을 때, 수치심 경향성은 우울증상과 여전히 강한 상관이 있으나, 죄책감 경향성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수치심 또는 수치심과 '융합된'(fused) 죄책감이 우울증상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죄책감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없으며, 나아가 후자는 사회적 적용을 돕는 정서 양식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의 차이에 대해, Ferguson과 Crowley(1997)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상이함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중다특질-중다방법(multitrait-multimethod)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특질, 방법, 오류 요소들을 측정된 결과, TOSCA의 죄책감 경향성 척도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특질변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발견하고, 죄책감에 대한 Tangney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TOSCA의 죄책감 경향성 척도가 후회, 사과, 보상, 수정, 처벌받아 마땅함 등을 포함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죄책감의 반추적이고 만성적인 측면을 간과했다고 보았다. Ferguson과 Crowley(1997)는 TOSCA에 반추적 죄책감 문

항들 - '잘못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성하는 것', '보상에 대한 반복적 시도' - 을 추가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죄책감 경향성 척도보다 추가된 반추적 죄책감경향성 척도의 특질변량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죄책감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Quiles과 Bybee(1997)도 죄책감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치심 척도와 죄책감 척도들을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죄책감 척도들은, TOSCA의 죄책감 경향성 척도와 Mosher 죄책감 척도(Mosher Forced-Choice Guilt Scale: MFCGS; Mosher, 1966)가 한 요인으로, 그리고 GI(Guilt Inventory: Kugler & Jones, 1989)와 PFQ-2의 죄책감 경향성 척도가 다른 한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이것을 각각 상황적 죄책감과 만성적 죄책감으로 구별하였다. 상황적 죄책감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성이라면, 만성적 죄책감은 즉각적인 촉발 사건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죄책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죄책감을 세분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증상들과의 관련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만성적 죄책감은 우울증상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치심은 우울증상들과 정적 상관이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반면, 죄책감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는 연구에 사용된 척도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각각 우울증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우울증상과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심에 대한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어떻게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Lewis(1971)의 이론에 따르면, 수치심과 죄책감에는 인지적 요소가 포함된다. 즉 '자기' 또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내포된다. 이러한 인지적 요소와 관련하여, Tangney등(1992)은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생성적 귀인양식 중 안정성 차원, 통제성 차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나 귀인양식이 우울증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과 수치심 경향성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성으로 보아야 하고 (Bruns & Seligman, 1989), 따라서 수치심 경향성과 귀인양식은 우울증상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세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추론도 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사건귀인은 개인이 경험한 실제 사건에 대한 귀인으로, 귀인양식과 우울증상간을 매개하는 상황적 변인이다(이영호, 1993). 이같은 이유로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건귀인이 매개변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치심 경향성은 자기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죄책감 경향성은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보다 변동적이며 특정한 원인에 귀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과 죄책감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에서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에서 다르게 귀인하게 되고 따라서 우울증상을 보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즉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을 하고 그 결과 우울증상을 나타내며, 죄책감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변동적이고 특정한 귀인을 하고 그 결과 우울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죄책감 경향성에 비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함으로써 우울정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건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

에서는 죄책감 경향성을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하 '죄책감 경향성'으로 약함)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 수치심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수치심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건귀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은 부정적 사건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게 하며, 사건 귀인의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사건귀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 TOSCA와 PFQ-2를 사용하여 위의 가정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피험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교육방법과 불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여자 대학생 325명을 피험자로 하였다.

도 구

개인 느낌 질문지(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 2)는 Harder와 Zelma(1990)가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것은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정동적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치심 문항

10개와 죄책감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죄책감 문항에는, '후회' '양심의 가책'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걱정' '강한 죄책감' 등이 포함되고, 수치심에는 '당황스러움' '창피스러움' '타인의 웃음거리가 된 것같은 느낌' '힘오스런 느낌'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PFQ-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작업은 본 연구자가 일차 번안한 뒤, 임상 및 상담 전공의 석사과정 학생 16명과 함께 수정하였으며, 캐나다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동시통역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역번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심 경향성 하위척도와 죄책감 경향성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각각 .83, .80 이었으며, 3주 간격으로 측정된 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0, .74였다.

자기의식적 정동검사(TOSCA: Test of Self-Conscious Affect)는 Tangney, Wagner 및 Gramzow(1989)가 제작한 도구로,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관련되는 감정들만을 다루는 PFQ-2와는 상당히 다르다. Tangney 등은, Lewis(1971)의 이론에 따라, 정서의 초점이 '자기 전체' 또는 '행동'에 맞추어 지는가에 따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이 두가지 경향성과 관련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PFQ-2에 비해 다루는 차원이 다양하다. TOSCA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자기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의 대안 반응에 대해 평정하게 되어 있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간략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각각의 시나리오 아래에는 있을 만한 여러가지 대안적 양식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각 대안들에서 대안처럼 반응할 것 같은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나리오는 모두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65개의 반응이 평정된다. 각각의 시나리오 아래에는 수치심, 죄책감, 비난 또는 원인의 외면화, 분리/무관심을 나타내는 반응들이 이어진다. 예를 들면,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점심 시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다. 당신은...' 그

리고 응답자들은 다음의 각각의 양식에서 반응 가능성을 평정한다. '난 신중하지 못해'(수치심 경향성), '약속을 못지킨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만회하려 할 것이다'(죄책감 경향성). 점심 시간 전에 다른 친구가 나를 정신없게 했어'(비난의 외면화). '그 친구가 이해할거라고 생각한다'(분리/무관심).

본 연구에서 TOSCA를 번안하여 사용했는데, 번안은 PFQ-2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반추적 죄책감 문항을 만들기 위해, 임상 및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 12명에게 번역한 TOSCA 질문지를 주고 각각의 시나리오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여, 반추적 죄책감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반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을 제작하여 각 시나리오 안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반추적 죄책감에 해당되는 문항의 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계속 생각한다.', '물건을 숨긴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TOSCA 질문지는, 원래 문항 65개에 본 연구자가 제작한 반추적 죄책감 문항 15개가 첨가되어 모두 8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표본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각각 .76, .67이며, 재검사 신뢰도는 .82, .61이었다.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 척도는 .78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71의 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Beck과 동료들(1967)이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는 모두 21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사건귀인 질문지는 이영호(1993)가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최근 2주 동안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 중 가장 힘들었던 세 가지를 들게 한 후, 각 사건의 원인에 대해 내부, 안정성 및 통제성을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 따

라 안정성 차원 3 문항과 총체성 차원 3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절 차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지, 사건 귀인 질문지, 한국판 BDI를 하나로 묶어서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친 회귀분석을 실행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Baron & Kenny, 1986). 첫째, 예언변인에 대해 매개변인의 회귀 추정을 하며 여기에서 예언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예언변인에 대해 준거변인의 회귀 추정을 하며 이때 예언변인은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과 예언변인에 대해 준거변인의 회귀 추정을 한다. 이 회귀식에서 매개변인은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예언변인의 효과가 두번째 회귀 추정에서의 효과보다 감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그리고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각각 사건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증상을 설명하

는지를 보았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첫째 연구 문제인 세 가지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검증할 수 있었다. 통계분석에는 SPSS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결 과

TOSCA 하위척도들과 PFQ-2의 하위척도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본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TOSCA와 PFQ-2의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관계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난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TOSCA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r=.20, p<.001$, PFQ-2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r=.74, p<.001$. TOSCA의 수치심 경향성 척도와 PFQ-2의 죄책감 경향성 척도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39, p<.001$. 그러나 TOSCA의 죄책감 경향성 척도와 PFQ-2의 수치심 경향성 척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1, ns$.

한편 TOSCA의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수치심 경향성이나 죄책감 경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5, p<.001, r=.59, p<.001$, PFQ-2의 수치

표 1. PFQ-2 하위척도들과 TOSCA 하위척도들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1. PFQ수치심						
2. PFQ죄책감	.74***					
3. TOSCA수치심	.45***	.39***				
4. TOSCA죄책감	.01	.10*	.20***			
5. TOSCA반추적죄책감	.19***	.29***	.55***	.59***		
6. TOSCA외면화	.16**	.04	.41***	.09	.19***	
평균	13.86	9.21	40.62	59.34	54.53	38.47
표준편차	5.67	3.81	8.66	5.77	8.11	6.85

* $p < .05$. ** $p < .01$. *** $p < .001$.

심 경향성이나 죄책감 경향성보다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19, p<.001$ $r=.29, p<.001$.

둘째, TOSCA와 PFQ-2에서 수치심 경향성은 비난의 외면화 지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나, $r=.41, p<.001$, $r=.16, p<.01$, 죄책감 경향성은 외면화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9, ns$, $r=.04, ns$. 한편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과 비난의 외면화 지표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19, p<.001$.

수치심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PFQ-2의 수치심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수치심 경향성이 사건귀인 중 안정성과 총체성의 매개를 통해 우울증상을 설명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 단계에 걸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첫번째 회귀분석에서 준거변인으로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투입하였다. 예언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 변인을 투입하기 전에 통제변인으로 죄책감 경향성 변인을 일차 투입하였다. 이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상관 정도가 크기 때문에 죄책감 경향성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음의 회귀분석에서도 수치심 경향성에 앞서 죄책감 경향성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 경향성은 사건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22, p<.01$.

두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준거변인으로 우울증상을, 예언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투입하여 우울증상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수치심 경향성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56, p<.001$. 세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우울증상에 대한 사건귀인과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건귀인과 수치심 경향성은 각각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16, p<.01$, $\beta=.55, p<.001$.

이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는 사건귀인의 매개를 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의 우울증상에 대한 직접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수치심 경향성 및 우울증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와 같이 세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 경향성은 안정성 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beta=.09, ns$. 안정성 차원도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 $\beta=.001, ns$. 한편 수치심 경향성은 총체성 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beta=.26, p<.001$, 총체성 귀인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22, p<.001$. 이 결과는 사건귀인의 매개 효과가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보다 총체성 차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표 2. 우울증상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PFQ-2)과 사건귀인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준거 변인	예언 변인	β	R^2 변화량	F 변화량
I 사건귀인	1. 죄책감	.10	.01	3.55
	2. 수치심	.22	.02	7.21**
II 우울	1. 죄책감	.44	.20	77.73***
	2. 수치심	.56	.14	69.74***
III 우울	1. 사건귀인	.16	.03	8.13**
	2. 죄책감	.43	.18	73.77***
	3. 수치심	.55	.13	65.34***

* $p < .05$. ** $p < .01$. *** $p < .001$.

TOSCA의 수치심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TOSCA 척도로 측정된 수치심 경향성이 사건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첫번째 회귀분석에서 사건귀인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보기 위해, 죄책감 경향성 변인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 변인이 통제변인으로 우선 투입되었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은 사건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beta = .13, p < .05$. 두번째 회귀분석에서 죄책감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우울증상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beta = .36, p < .001$. 세번째 회귀분석에서 사건귀인과 수치심 경향성은 각각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beta = .16, p < .01; \beta = .35, p < .001$.

심 경향성은 총체성 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beta = .14, p < .01$. 총체성 귀인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 = .22, p < .001$. 이 결과는 사건귀인의 매개 효과가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보다 총체성 차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수치심 경향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과 사건귀인의 부분적 매개효과는 PFQ-2와 TOSCA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과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죄책감 경향성 변인과 수치심 경향성 변인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번째 회귀분

표 3. 우울증상에 대한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TOSCA)과 사건귀인의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준거 변인	예언 변인	β	R^2 변화량	F 변화량
I 사건귀인	1. 죄책감	.03	.02	3.22*
	수치심	.13		
	2. 반추적 죄책감	.11	.01	1.89
II 우울	1. 죄책감	-.12	.14	27.78***
	수치심	.37		
	2. 반추적 죄책감	.02	.00	0.07
III 우울	1. 사건귀인	.16	.03	8.13**
	2. 죄책감	-.12	.12	23.28***
	수치심	.36		
	3. 반추적 죄책감	.01	.00	0.01

* $p < .05$. ** $p < .01$. *** $p < .001$.

이 결과는 우울증상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 중 일부는 사건귀인의 안정성과 총체성 차원에 매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 경향성의 직접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수치심 경향성 및 우울증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수치심 경향성은 안정성 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beta = .06, ns$. 안정성 차원도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 $\beta = .001, ns$. 한편 수치

심에서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사건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 $\beta = .12, ns$. 두번째 회귀분석에서도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beta = .02, ns$. 세번째 회귀분석에서 사건귀인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지만,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표 3에서 보았듯이, 통제변인 없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우울

표 4. 우울증상에 대한 죄책감 경향성(PFQ-2)과 사건귀인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준거 변인	예언 변인	β	R^2 변화량	F 변화량
I 사건귀인	1. 수치심	.18	.03	12.49***
	2. 죄책감	-.06	.00	0.50
II 우울	1. 수치심	.58	.34	146.36***
	2. 죄책감	.05	.00	0.11
III 우울	1. 사건귀인	.16	.03	8.13**
	2. 수치심	.57	.32	154.11***
	3. 죄책감	.03	.00	0.15

* $p < .05$. ** $p < .01$. *** $p < .001$.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수치심 경향성과 공유되지 않는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 고유의 부분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죄책감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PFQ의 죄책감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죄책감 경향성이 사건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 변인이 죄책감 경향성 변인에 앞서 투입

되었다. 그 결과 첫번째 회귀분석에서 죄책감 경향성은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건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beta = -.06$, *ns*. 두번째 회귀분석에서도,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beta = .02$, *ns*. 세번째 회귀분석에서 사건귀인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beta = .13$, $p < .05$,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 = .03$, *ns*. PFQ-2의 죄책감 경향성과 사건귀인의 결과는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의 결과와 아주 유사하다. 즉 우울증상과 상당히 강한 정적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인을 투입했을 때, 죄책감 경향성의 고유 변량이

표 5. 우울증상에 대한 죄책감 경향성(TOSCA)과 사건귀인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준거 변인	예언 변인	β	R^2 변화량	F 변화량
I 사건귀인	1. 반추적 죄책감	.08	.03	4.09*
	수치심	.09		
	2. 죄책감	-.03	.00	0.20
II 우울	1. 반추적 죄책감	.07	.13	23.00***
	수치심	.39		
	2. 죄책감	-.13	.01	3.94
III 우울	1. 사건귀인	.16	.03	8.13**
	2. 반추적 죄책감	-.08	.11	21.15***
	수치심	.38		
	3. 죄책감	-.13	.01	3.77

* $p < .05$. ** $p < .01$. *** $p < .001$.

우울증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TOSCA의 죄책감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의 관계

TOSCA의 죄책감 경향성은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에서도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므로, 회귀분석에서도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위의 세 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여기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통제변인으로 우선 투입되었다. 첫번째 회귀분석 결과에서 죄책감 경향성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건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beta = -.03, ns$,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도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beta = .13, ns$.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사건귀인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지만, $\beta = .16, p < .01$,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beta = -.13, ns$.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수치심 경향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어 온 반면에, 죄책감 경향성은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척도인 TOSCA와 PFQ-2를 사용해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추적 죄책감을 재는 문항을 추가하여 죄책감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수치심 경향성이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의 매개를 거쳐 우울증상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 문제의 검증에 앞서, TOSCA와 PFQ-2의 하위척도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그리고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이 세 가지가 공유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로서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즉 이 세가지 경향성은 자기나 자기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불쾌한 경험들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경향성은 타인에 대한 비난과 관련하여

표 6. 우울증상에 대한 죄책감 경향성(TOSCA)과 사건귀인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준거 변인	예언 변인	β	R^2 변화량	F 변화량
I 사건귀인	1. 반추적 죄책감	.08	.03	4.09*
	수치심	.09		
	2. 죄책감	-.03	.00	0.20
II 우울	1. 반추적 죄책감	.07	.13	23.00***
	수치심	.39		
	2. 죄책감	-.13	.01	3.94
III 우울	1. 사건귀인	.16	.03	8.13**
	2. 반추적 죄책감	-.08	.11	21.15***
	수치심	.38		
	3. 죄책감	-.13	.01	3.77

* $p < .05$. ** $p < .01$. *** $p < .001$.

차이를 보였다. 수치심 경향성은 타인을 비난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죄책감 경향성은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Lewis(1971)가 임상장면에서 수치심이라는 고통스런 경험에 분노가 흔히 수반된다고 보고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며, 행동의 동기화에 있어서 두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도 타인을 비난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관련 정도가 TOSCA에서 측정된 수치심 경향성에 비해 매우 작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척도에서 측정된 수치심 경향성은 모두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음이 검증되었다. 수치심 경향성은 PFQ-2에서는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도 우울증상의 14%를 설명하였으며, TOSCA에서는 죄책감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도 우울증상의 9%를 설명하였다. 한편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던 것과 달리,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OSCA에서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은 죄책감 경향성과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면 우울증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다.

죄책감 경향성은 예상했던대로 두 가지 척도 모두에서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죄책감 경향성은 PFQ-2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나면 우울증상의 0.1%도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TOSCA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반추적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나면 우울증상의 1% 정도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PFQ-2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의 20%를 설명하지만,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하면 우울증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수치심 경향성과 공유되지 않는 죄책감 경향성 고유의 변량은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Tangney(1992, 1996)가 죄책감 경향성을, 수치심과 '융합'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죄책감

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나 죄책감 경향성 어느 한 가지를 측정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측정해서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도 타당하다. 즉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 부정적인 정서이며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정서이므로, 어느 한가지 정서만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그 정서만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죄책감 경향성은 왜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로 규범을 위반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죄책감이 들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또한 이러한 죄책감이 개인의 적응을 도울 수도 있다. 긴장과 후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한다. 더우기 죄책감에 있어서는 그 부담스런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것은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거나 사과하거나, 또는 보상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 있다.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죄책감이 여러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하는 것을 밝혀왔다(Baumeister et al., 1994; Ferguson et al., 1995; Zahn-Waxler et al., 1990). 그러나 죄책감이 친사회적 행동과 연결되지 못하고 해결되지도 완화되지도 못할 때,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느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우울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 후에 우울해지는 것은, 자신의 못마땅한 행동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세째, 수치심 경향성과 우울증상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었던 사건귀인의 효과는 TOSCA와 PFQ-2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사건귀인의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을 구별하여 각각의 매개 효과를 보았을 때, 총체성 차원에서만 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따라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에게 부정적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대해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을 함으로써 우울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치심 경향성이 '자기 전체'에 대한 평가나 느낌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안정성 귀인보다는 원인이 포함하는 영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총체성 귀인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치심 경향성이 사건 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변량의 크기는 작은 반면, 수치심 경향성이 우울증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상대적으로 컸다(PFQ-2 13%, TOSCA 8%). 이는 수치심 경향성이 사건귀인의 매개를 통해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나 기제를 통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제, 즉 중재변인 또는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임상적 함의를 살펴보면, 우선 죄책감보다도 수치심이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임상장면이나 치료에서 핵심 문제에 접근하거나 치료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유용할 것이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정서로 언급되어 온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임상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앞에 언급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죄책감은 부당하게 나쁜 평판을 받아 왔으며 죄책감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임상장면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죄책감 경험일지라도, 그 뒤에 수치심이 가려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그를 우울하게 하는 핵심문제일 수 있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을 함으로써 우울해진다는 점은, 임상장면에서 인지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나친 수치심 역시 인지적 왜곡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재귀인 훈련과 같은 인지치료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

은 그 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귀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우울증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될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교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치심과 우울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 첫째 피험자로 정상 대학생, 그 중에서도 여학생 집단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죄책감 경향성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Bybee와 Quiles(1998)는 좀 더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에도 죄책감 경향성이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반집단 뿐만 아니라 임상집단을 포함한 집단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Tangney, 1990), 남녀 집단간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해지기 쉬우며, 그 사건에 대한 귀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나, 그 설명 변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는 사건귀인의 측정에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 수가 3 문항씩으로 적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귀인하도록 요구한 부정적 사건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건에 비해 더 포괄적이며 덜 특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꼈던 사건들에 대한 귀인을 보다 많은 문항으로 측정하여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모두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PFQ-2 와 TOSCA는 미국에서 제작되어 타당화 작업을 거쳤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들이다. 또한 수치심이

나 죄책감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동적 기술어를 사용하거나,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문화적 변인을 가능한 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관련되는 감정 기술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수치심 또는 죄책감 유발 사건을 다루거나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관련되는 감정 및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사건귀인 및 우울증상 등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이 같은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제약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종단적인 설계나 실험적 설계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권 1호, 98-11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 Scher, S. J. (1988). Self-defeating behavior patterns among normal individuals: Review and analysis of common self-destructive tend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3-2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urns, M. O., & Seligman, M. E. P. (1989). Explanatory style across the life span: Evidence for stability over 52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71-477.
- Bybee, J., & Quiles, Z. N. (1998). Guilt and mental health.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 269-291). San Diego: Academic Press.
- Ferguson, T. J., Stegge, H., &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 827-839.
- Ferguson, T. J., & Crowley, S. L. (1997). Measure for measure: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guilt and sham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425-441.
- Freedman, J. L. (1970). Transgression, compliance, and guilt. In J. Macaulay & Berkowitz (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pp. 155-16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reedman, J. L., Wallington, S., & Bless, E. (1967). Compliance without pressure: The effect of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117-124.
- Freud, S. (1953).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7, pp. 125-243).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 Freud, S. (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30)
- Harder, D. H., Cutler, L., & Rockart, L. (1992).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 584-604.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 55, 729-745.
- Hoffman, M. L. (1982).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21-137.
- Karniol, R. (1982). Behavioral and cognitive correlates of various immanent justice responses in children; Deterrent versus punitive moral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811-820.
- Kugler, K., & Jones, W. H. (1989). *The measurement of guilt: A validation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South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Huston, TX.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osher, D. L. (1966). The development and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analysis of three measures and three aspects of guil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5-29.
-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A psychoanalytic and cultural study*.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Quiles, Z. N., & Bybee, J. (1997). Chronic and predispositional guilt: Relations to mental health, prosocial behavior, and religios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104-126.
-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2-111.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8-607.
-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8-607.
- Tangney, J. P., Burggraf, S. A., & Wagner, P. (1995).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pp. 343-367). New York: Guilford.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 Tomkins, S. S. (1987). Shame.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Zahn-Waxler, C., & Kochanska, G. (1990). The origins of guilt. In R. A. Thompson (Ed.),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8: Socioemotional development* (Vol. 36, pp. 182-25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Zahn-Waxler, C., Kochanska, G., Krupnick, J., & Mcknew, D. (1990). Patterns of guilt in children of depressed and well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51-59.

원고접수일 1999. 10. 12

수정원고접수일 2000. 1. 26

게재결정일 2000. 3. 9 ■

The Effects of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Event Attribution on Depression

Jong-Onn Shim ·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event attribution on depressio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were measured with two different measures,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and TOSCA(Test of Self-Conscious Affect). 325 female college students completed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Event Attribution Questionnaire as well as PFQ-2 and TOSC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shame-proneness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 but that of guilt-proneness including ruminative guilt-proneness on depression were not significant. Second, the mediation effects of event attribution between shame-proneness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 Finally,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